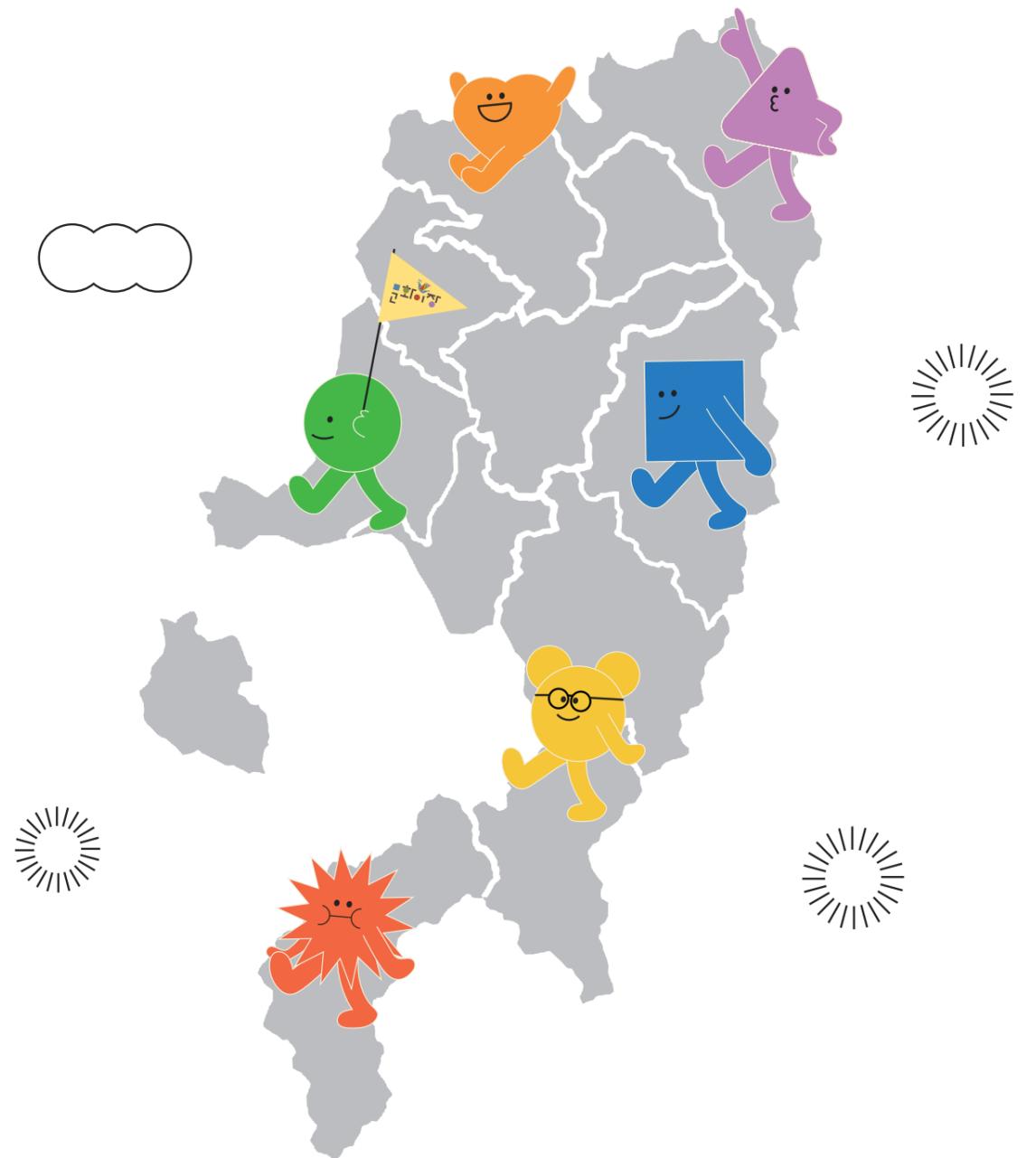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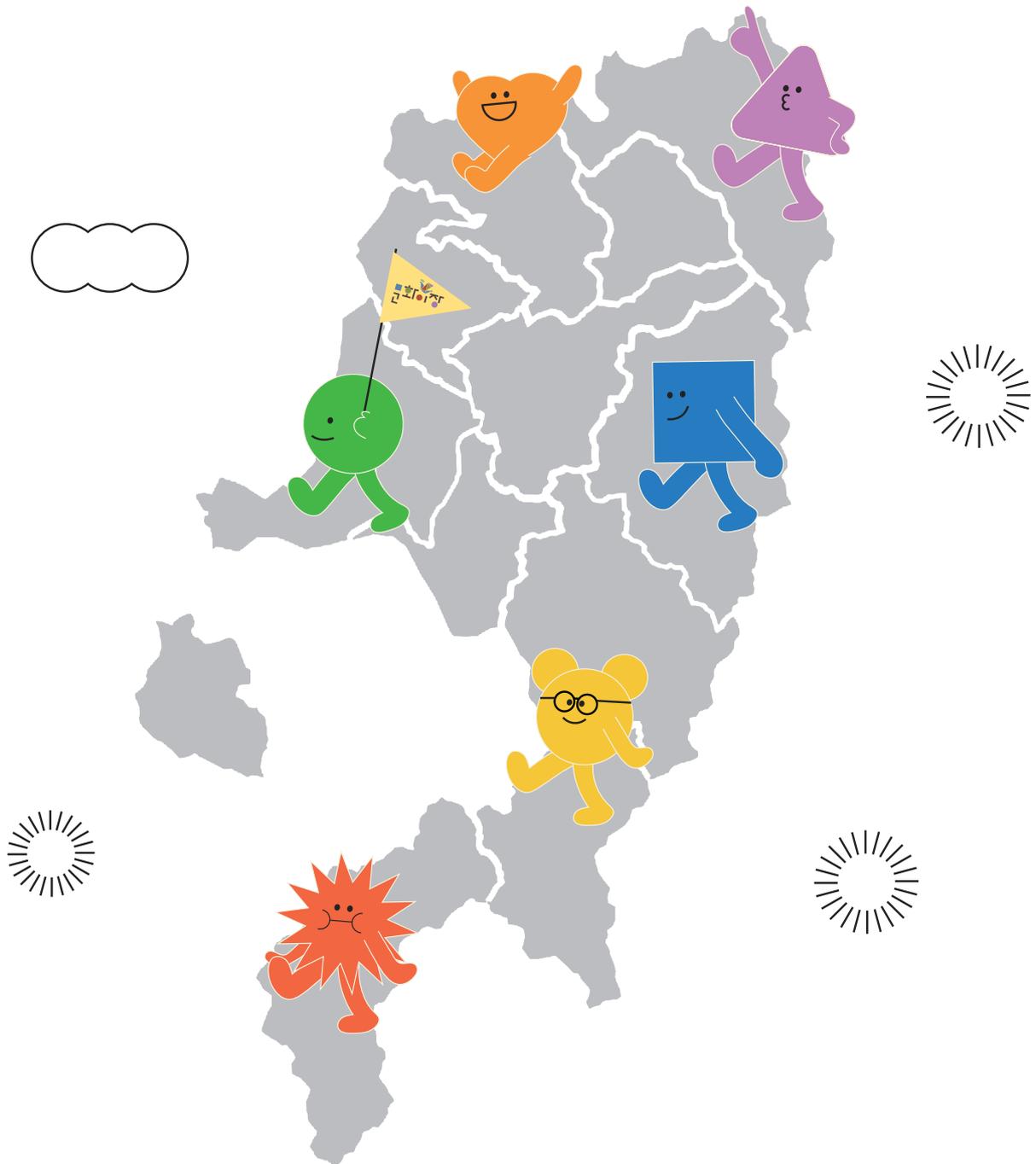
마을을 움직인 문화의 힘

2025 문화이장이야기



마을을 움직인 문화의 힘

2025 문화이장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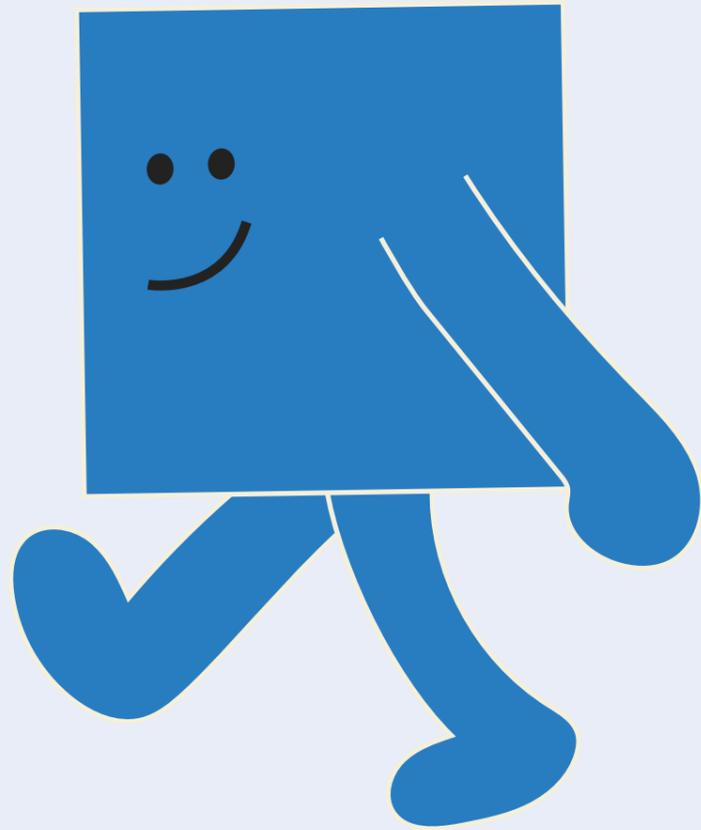


마을을 움직인 문화의 힘

2025 문화이장이야기



1. 문화이장 사업 소개	04
2. 2025년 문화이장 사업 전체 활동보고	08
3. 문화이장, 현장에서 말하고 듣다	18
- 문화이장 6기	20
- 문화이장 7기	26
- 문화이장 8기	32
4. 운영 개선 방안 및 2026 사업 계획	3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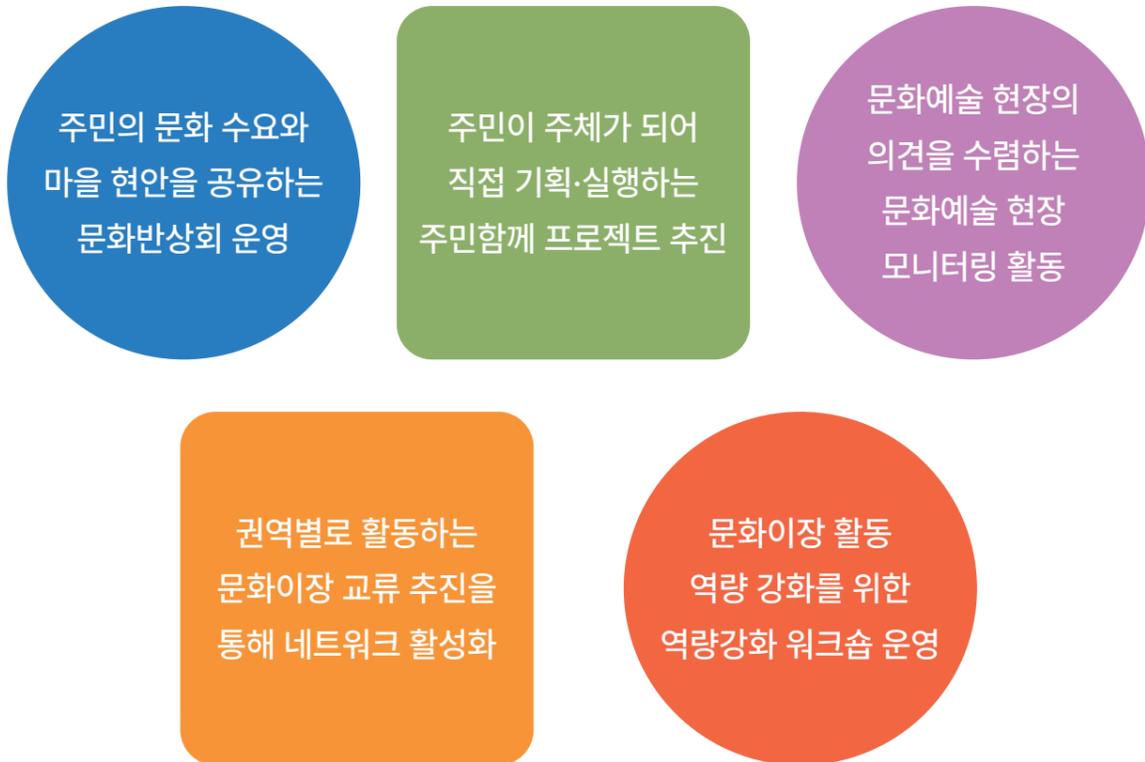
문화이장 사업 소개

◆ 문화이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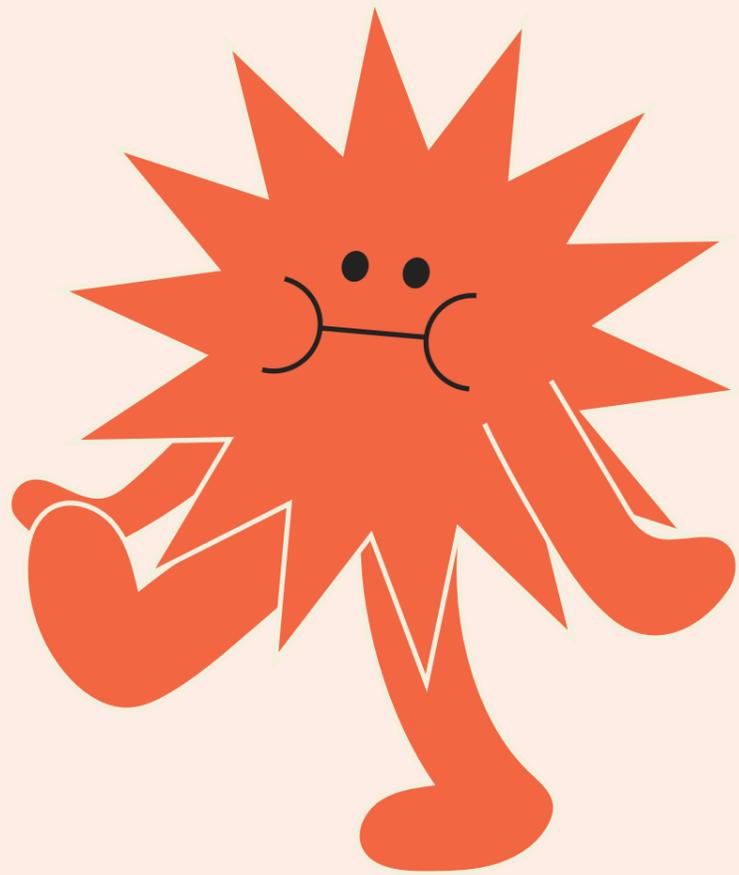
완주군 13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이장은 지역의 문화 수요와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주체이자 완주형 문화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의 활동을 통해 마을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며, 완주문화재단의 핵심 문화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활동



◆ 2025년 주요 활동 세부 연혁

일정	활동내용
3월	문화이장 7기 사전간담회 2024년 활동 회고 및 2025 문화이장 활동 제안
3월	문화이장 6기 사전간담회 2024년 활동 회고 및 2025 문화이장 활동 제안
4월	문화이장 8기 모집공고 문화이장 6-7기 역량강화 워크숍
5월	문화이장 8기 14명 선정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11회, 문화이장 6기 주민함께 프로젝트 총 2회
6월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3회, 문화이장 6기 주민함께 프로젝트 총 1회 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총 5회 진행
7월	문화이장 8기 위촉식 문화이장 8기 선진지 '임실치즈마을' 견학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1회, 문화이장 6기 주민함께 프로젝트 총 1회
8월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4회, 문화이장 6-7기 주민함께 프로젝트 총 3회
9월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3회, 문화이장 8기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총 5회 활동
10월	문화이장 7기 문화반상회 총 2회, 문화이장 7기 주민함께 프로젝트 총 1회, 문화이장 8기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총 1회 활동
11월	문화이장 7-8기 권역별 네트워크 문화이장 8기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총 2회 활동
12월	2025 문화이장 성과공유회 - 문화이장, 현장에서 말하고 듣다



2

**2025년 문화이장
사업 전체 활동보고**

✦ 2025년 문화이장 활동

일정	활동내용
3월 13일	문화이장 7기 사전간담회 2024년 활동 회고 및 2025 문화이장 활동 제안
3월 17일	문화이장 6기 사전간담회 2024년 활동 회고 및 2025 문화이장 활동 제안
4월 9일 ~ 5월 13일	문화이장 8기 모집공고
4월 14일	문화이장 6-7기 역량강화 워크숍
5월 15일	문화이장 8기 14명 선정
5월	문화반상회 11회, 주민함께 프로젝트 2회
6월	문화반상회 3회, 주민함께 프로젝트 1회
6월 30일 ~ 7월 21일	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총 5회 진행
7월 21일	문화이장 8기 위촉식
7월 28일	문화이장 8기 선진지 견학
7월	문화반상회 1회, 주민함께 프로젝트 1회
8월	문화반상회 4회, 주민함께 프로젝트 3회
9월	문화반상회 3회,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5회 활동
10월	문화반상회 2회, 주민함께 프로젝트 1회,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1회 활동
11월 12일	문화이장 7-8기 권역별 네트워크
11월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2회 활동
12월 10일	2025 문화이장 성과공유회 - 문화이장, 현장에서 말하고 듣다

✦ 2025년 문화이장 8기



김동문(경천면), 김은혜(고산면), 박나연(상관면), 이건희(봉동읍),
이영환(용진읍), 임 솔(소양면), 전성희(삼례읍), 정점순(구이면),
조운성(화산면), 조운주(봉동읍), 최석근(봉동읍), 최승연(용진읍),
최윤미(삼례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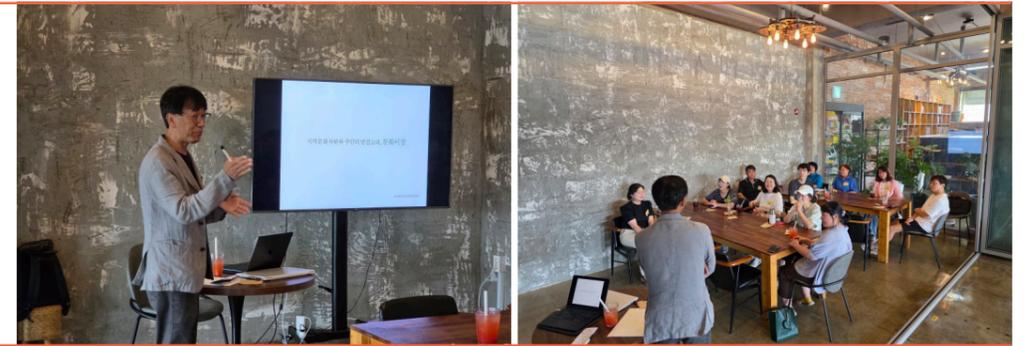
✦ 2025년 문화이장 8기 워크숍

기획목적

- 지역 문화기반 조성 과 공동체 운영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 및 체험
- 문화이장으로서의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활동 방향 구체화 도모

일정	내용
6월 30일	<p>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1차</p> <p>강사 :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p> <p>강의내용 : 마을 문화자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제시 : 일상 속 공간을 활용한 마을 문화기획 사례 설명</p>
7월 7일	<p>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2차</p> <p>강사 :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학장</p> <p>강의내용 : 완주의 역사·문화 이해 : 역사로 알아보는 지역 문화 기록과 보존의 필요성 강조 : 마을의 시간(과거-현재-미래)과 문화의 연결 방안 설명</p>
7월 21일	<p>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3차</p> <p>강사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p> <p>강의내용 : 마을 구성원,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하는 문화적 의미 파악 :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문화활동가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감수성 교육 : 포용을 전제로 한 문화적 실천과 태도</p>
7월 21일	<p>문화이장 8기 역량강화 워크숍 4차</p> <p>강사 : 강현정 공공문화연구소 소장</p> <p>강의내용 : 지역 문화활동 기획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문화이장의 역할 및 활동 범위 : 문화이장 각자 마을에서 이뤄내고 싶은 변화에 대한 모색 및 발표 : 문화이장 개인별 활동 방향 설정 및 공유</p>

1차
6월 30일



2차
7월 7일



3차
7월 21일



4차
7월 21일



✦ 문화이장 8기 선진지 견학

임실치즈마을에서 배우는 문화공동체의 실천

일정

임실치즈마을 '지정항공동체학교' 사례 특강 - 임실치즈마을 라운딩 - 점심식사 - 지역 특산품 연계 '미니 피자 만들기 체험' - 복합문화공간 소개 및 요거트만들기 체험



✦ 문화이장 6-7기 역량강화 워크숍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AI'

기획목적

· 스마트폰 기반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이장 활동의 효율성 및 분야 확장 도모

일정

· **강사** : 최영두(두두아저씨와 함께 하는 설화여행)
· **강의내용** : 스마트폰 AI어플을 활용한 이미지, 영상 제작 실습



✦ 문화이장 7-8기 권역별 네트워크

기획목적

· 문화이장 7-8기 대상 특강 및 권역별 네트워킹을 통한 26년 상반기 활동 제안 및 협업 기대

일정

- **강사** : 로컬큐레이터 손안나 대표
- **강의내용** : 「완주' 문화기획자에게 듣다」- 로컬에서 문화로, 사람을 잇다

[주요 의견]

- 권역별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이장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문화이장 간 연락망 공유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와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 확대 필요성 제안



✦ 2025 문화이장 성과공유회 - 문화이장, 현장에서 말하고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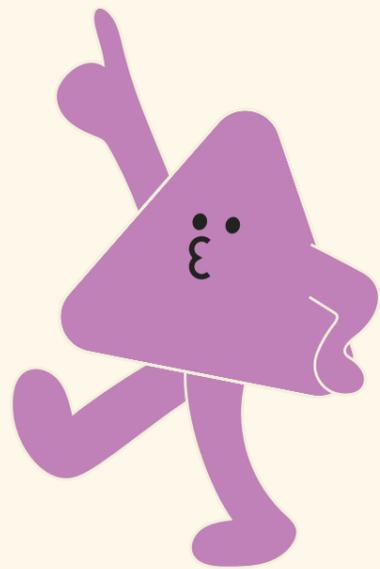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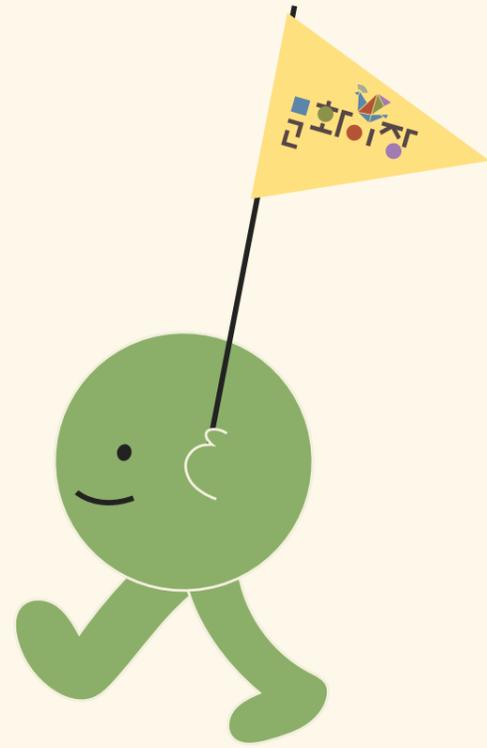
기획목적

· 문화이장 전체 1-8기 활동 사례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이장 협력 체계 강화

내용

- 2025년 문화이장(6-8기) 활동 총 48회, 참여인원 총 380명
- 전체 문화이장의 문화반상회·주민함께 프로젝트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 및 사진 기획 전시 구성
- 특히 문화이장 6-8기의 2025년 주요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작품 전시 구성





3

**문화이장,
현장에서 말하고 듣다**

- 문화이장 6기
- 문화이장 7기
- 문화이장 8기

◆ 문화이장 6기 안서영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삼례 주민과의 문화예술체험”

: 공연과 체험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과의 공감 및 소통의 장 기획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내가 속해 있던 문화가 유일하거나 '정상'이 아님을 깨닫고, 세상에는 수많은 방식의 삶과 가치관이 존재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일게 되었습니다. 편견이 줄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향상되는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삼례는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에 대한 문화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이장을 하고 나서 이주민에 대한 삶의 문화를 깊이 고민하고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수정해야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의 문화로 인해서 선주민들 문화의 정체성이 잃어 가지 않도록 상호 보존하게끔 노력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지 않고 여러 해결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이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6월 5일 문화이장 주민함께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 독거노인 쌀 나눔 행사장에 가서 문화 행사를 하는 도중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김순임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김순임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열싸안고 울었습니다.

10년 전 저하고 같이 문화생활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우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생활을 하고 싶으나 나이가 들어서 안되고, 그리움은 가진 채 관객으로만 남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100세에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겠다고요.

활동 사진



◆ 문화이장 6기 김영란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원성덕마을 잔치날”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전주의 할 일과 완주의 작업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저에게는 문화이장은 또 다른 “도전”이자 마을 주민의 일원이 되는 노력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토크를 질문하고 고증하고 주민들의 기억을 되살려 마을지도를 완성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치매 교육도 같이 받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밥부터 먹으라 하시고, 이렇듯 많은 시간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이장의 첫걸음은 주민과 시간을 공유하고 친해지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다 완성된 마을지도를 아래뜰 정자에 길게 걸고 모두 모여 자랑스럽게 마을 주민 단체 사진을 찍던 날입니다. 늦게 달려오시는 분들 덕분에 몇 번이고 다시 찍던 그 순간순간 그 웃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억을 덧대고, 손길로 채색하여 만든 <사랑해요 원성덕 마을> 지도에 적힌 당신들의 이름과 집을 찾으며, 즐거워하던 주민들은 마을 지도를 갖은 ‘문화마을주민’이란 자부심으로 등등하곤 하셨습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6기 황경희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마음을 잇는 실”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 활동을 하면서 제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수업 일정이 많아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던 점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프로젝트 만큼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와 아내로 살아오며 일을 하면서도 늘 가족을 우선시해왔던 저에게, 「마음을 잇는 실」 프로젝트는 잠시나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부터 재료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문화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시간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마음을 잇는 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작은 전시회를 열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수업과 병행하며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더 애착이 갔고 저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민들과 모여 마크라메 작품을 만들어 서로 도와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갔고,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웠어요.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되던 설렘의 순간들 역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걸어두고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나누던 그 장면 속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더 자주 시간을 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활동이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때의 아쉬움마저도 지금은 문화이장 활동이 제 삶에 남긴 소중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어요.

활동 사진



◆ 문화이장 6기 박미란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인생 2막 커뮤니티”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솔직히 ‘문화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문화이장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모임 하나,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 한 번, 아이들이 뛰어놀며 흥얼대는 노래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살아 있는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동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생활 공간으로만 보이던 마을이 이제는 문화의 무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문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문화이장 활동은 결국 제 삶의 시각을 바꾸고, 마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작년, 서울에 계시던 시부모님을 완주로 모셔왔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완주에서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완주에서 인생 2막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시도해봤지요. 그 과정에서 풀꽃으로 이름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께서 ‘세상에나, 살다 보니 나한테 이런 날도 다 있네...’ 하고 혼잣말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어 드렸는데, 참여자 한 분이 아이처럼 활짝 웃으시며 “내가 세상에서 절로 행복한 사람이지?” 자랑하듯 펼쳐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삶을 한층 신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일요. 사진첩을 들고 활짝 피어났던 그 웃음의 장면, 바로 그 순간이 올해 제 문화이장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것입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6기 이정현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놀이를 부탁해!!”

- : 이서면 공동체 놀이 문화 체험 및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 공동체 놀이 문화 쇠퇴에 따른 마을 단위 놀이 문화 재조명
- : 청소년이 직접 놀이 기획자이자 운영자, 참여자로 주도하여 과거의 놀이를 재연하는 작은 마을 문화 행사 운영
- : 또래·가족 간 유대감 회복 및 이웃들과 함께 웃고 협력는 공감의 장 형성
- : 향후 하반기 후속 프로그램 기획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활동 사진



◆ 문화이장 6기 최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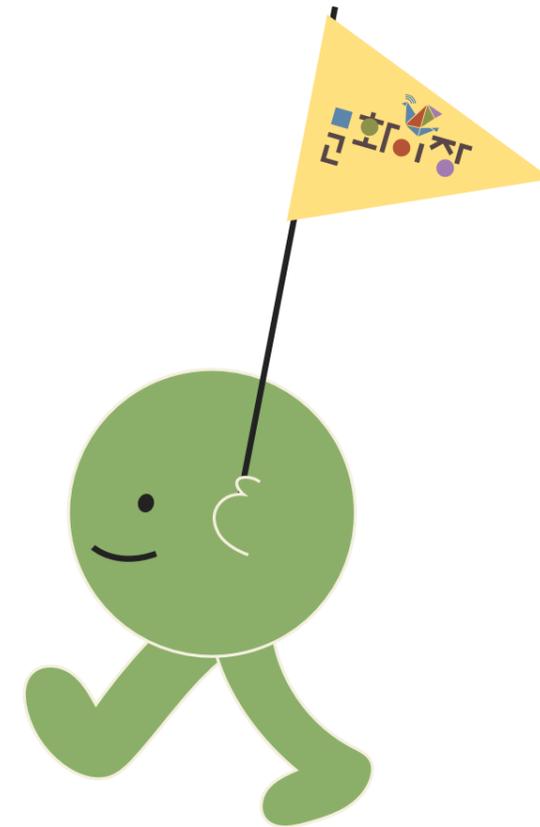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 덕에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이장으로서 얻은 다양한 영감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풀어가 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마을 표지석 건립 행사에 마을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문화이장 특방에 공유한 일이 떠오릅니다.



◆ 문화이장 7기 김규빈 ◆

주요 활동

문화반상회 총 5회 진행

문화반상회 총 5회 진행	과거 삼례의 모습과 마을의 변화에 대한 기억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리 놓기
	우리 마을을 위한 제안과 바람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삼례를 그저 익숙한 생활공간으로만 여기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화반상회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마을은 누군가의 기억이 쌓여 있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살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과거 삼례의 모습, 생활 속 불편, 그리고 “조금만 바뀌어도 살기 좋아질 텐데”라는 바람을 듣다 보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모으고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가로등, 경로당 환경처럼 사소해 보이던 문제들도 함께 이야기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문화이장 활동이 혼자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감각이 생긴 점입니다. 작은 반상회 하나, 짧은 대화 한 번이 마을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무엇을 할까”보다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문화반상회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순간입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다들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고, 과연 이야기가 잘 풀릴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옛날 삼례는 이랬지” 하고 말을 꺼내자, 그 이야기를 계기로 다른 어르신들의 기억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 모이던 풍경,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묻던 시절의 이야기가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특별한 무대도, 준비된 공연도 없었지만,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그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이런 자리는 참 오랜만이다”, “다음에 또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때 비로소 이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문화의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7기 차혜경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다시 쓰는 독립선언문”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습은 그동안 마을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문화이장이 되고 나서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장”이라 하면 동네의 모든 대소사를 알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이장이라는 역할이 지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서 의견을 모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어요.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특히 광복절 기획을 통해 세대 간 광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태극기 위에 다 같이 진행한 핸드프린팅 활동을 통해 광복에 대한 의미와 뜻을 되새기고 서로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추억을 학생들과 공유하게 된 점이 기억에 남았어요.

활동 사진



◆ 문화이장 7기 이덕례 ◆

주요 활동

문화반상회 총 4회 진행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꽃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 및 빈 공간에 식물 심기
	역사 탐방(동학농민혁명) 명소 방문과 위봉폭포의 웅장한 자연에 대하여 논의
	주민과 함께 만드는 '레몬 생강청' 체험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 활동을 하며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삶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문화이장 7기로서의 삶을 즐기며 일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더 나은 삶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웃고 소통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보이스피싱 교육을 필두로 김치&막걸리 체험, 안덕마을 체험, 나눔 행사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가까워졌고, 특히 식집사 체험학습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힐링의 시간과 보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용진에 거주한 지 2년 차가 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2026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7기 김숙자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우리, 한번 더!"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귀촌하여 아는 사람도 없고, 무료한 시간 속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할 때 문화 이장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 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하고, 문화를 향유해가며 전 이주민이 아니라 "원주민"이 되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 달려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합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어머니 내일은 찬밥으로 비누 만들게 오세요!!!"하고 언지만 드려도 어떻게 찬밥으로 비누를 만들어 하시며 옆집 뒷집 다 불러 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모습,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늘 참여하시고 고마워하시는 예쁜모습... 이런 모습이 활동 속 추억 하고픈 장면입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7기 문여정 ◆

주요 활동

문화반상회 총 5회 진행 “소양면 주민과 함께 하는 캘리그래피 동아리 활동”
: 소양면 주민과 함께 하는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운영하며, 다 같이 제작한 작품을 기반으로 완주군 내 다양한 축제에 참여 및 전시 진행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귀촌하였지만 생활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집은 학교와 일터에서 돌아와 쉬는 곳이었죠. 이웃들과 소통도 별로 없었고, 아까운 이웃과도 따로 약속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요. 그런데 문화이장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약속을 정해서 만나다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소식도 알게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특히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서 만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취미활동을 하다보니 초등학교 때 놓았던 붓을 다시 잡게 되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말씀과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니깐 꾸준히 할 수 있었다. 아니었으면 몇 번하고 포기했을 거다”라고 이웃 주민께서 말씀해주 시던 순간이 보람 있었습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7기 김현숙 ◆

주요 활동

주민함께 프로젝트 진행 “내 마음의 풍경”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문화라는 게 거창한 공연이나 전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웃음에서 시작 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막상 함께 해보니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즐 거워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문화 활동을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군가 먼저 손 내밀면 누구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임하게 됐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주민분들과 함께 그림 전시회를 했을 때였어요. 전문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마음이 담 긴 그림들이 한 공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 동네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단 순한 그림 전시가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걸고, 함께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 활동이었고 그 장면이 문화이장을 하며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활동 사진



◆ 문화이장 8기 김동문 ◆

주요 활동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총 2회 활동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아직 문화이장 1년차이다 보니 역량 강화 관련 교육 위주의 활동으로 생활 전반 변화된 모습은 없으나, 주변을 보면서 완주군 지역 내 문화자원 발굴과 어떻게 접목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재단에서 문화이장 교육을 받고 자부심이 생기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해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고, 올해는 아직 1년차이다 보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 기간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활동 장면은 없었습니다.

◆ 문화이장 8기 전성희 ◆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을 하기 전의 나는 '내 일, 내 가게, 내 생활'에 집중한 사람이었다면, 문화이장을 하며 나는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마을의 역사·자원·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교육을 마치고 마을을 걸으며,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공간과 사람을 '이야기'로 바라보던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긴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이 공간에 문화가 더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마을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그 순간이, 문화이장으로서 내가 가장 또렷하게 존재하던 장면입니다.

◆ 문화이장 8기 이영환 ◆

주요 활동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총 2회 활동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이장 활동을 시작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과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공간과 사람들에 대해 '이곳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지역 안에서 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문화이장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네트워크 자리에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던 순간들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활동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만남과 배움의 시간이 앞으로의 문화이장 활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이장 8기 최승연 ◆

인터뷰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을의 어떤 점을 알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다른 마을 문화이장님들의 능력들을 협업할 것을 찾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문화이장에는 크게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이장이 어떤 일을 해야하고, 어떤 것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어떤 문화적인 것을 누리게 할까에 대해 탐색하며 내년 활동에 대해 머릿속으로 주민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을 맘껏 구상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이장 8기 최윤미 ◆

주요 활동

문화예술 현장 모니터링 활동 진행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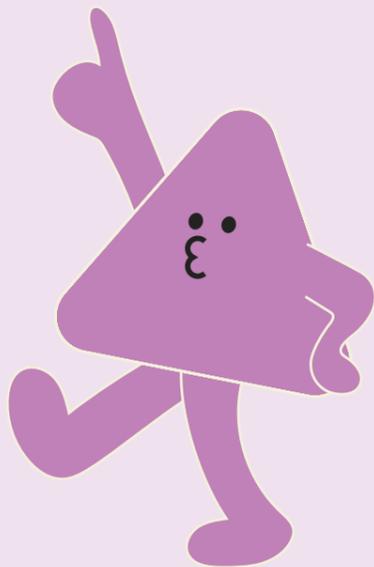
Q. 문화이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문화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전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가족이나 내 또래만 생각했었지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의 문화활동을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이장 8기가 신규이다보니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문화이장 자체적으로 한 활동이 다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활동 기획을 할 수 있다면 동네 이장님들과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Q. 올해 문화이장 활동을 하나의 장면으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올해의 문화이장 활동을 못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습니다. 축제 모니터링으로 더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반기는 바쁜 일정으로 더 많은 축제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2025 문화이장 운영 개선 방안

2025 문화이장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화이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문화이장 간 협력 구조와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어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강화의 필요성 제기

현재 문화이장 간 교류는 소규모의 비정기적 만남 위주로 이루어져, 권역별로 생활권과 활동 여건이 유사한 문화이장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기대하는 문화이장들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를 세분화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정보 공유와 협력 논의가 가능한 구조 마련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문화이장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단계적 네트워크 운영

문화이장들은 상호 협업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이를 실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와 구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미션형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이장 간 공동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협업 경험을 축적하여 자발적 모임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자발적 문화활동 기획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필요

주민 참여형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력, 소통 방식, 실행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 및 계획은 문화이장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 단위 문화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 문화이장 사업 운영 계획

■ 문화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7~9기 해당)

- 문화이장 역할 이해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 프로젝트 기획 및 아이디어 실제 활용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수요 조사 및 반영 예정

■ 권역별 네트워크(7~9기 해당)

- 신규 문화이장 9기의 초기 적응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목적
- 간단한 권역 미션(현장 탐방, 인터뷰, 기록 활동 등) 및 결과 공유 통한 소통·협업 강화

■ 문화예술현장 모니터링 활동(9기 해당)

- 완주군 내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활동
- 문화이장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 파악 및 개선점 제안

■ 문화반상회 (8기 해당)

- 주민과 지역의 문화 수요 및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활동 결과를 이후 완주문화재단의 정책 자료로 활용

■ 주민함께프로젝트 (7기 해당)

- 2025년도 문화반상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주민함께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 기획서 제출을 통해 재단과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진행

마을을 움직인 문화의 힘
2025 문화이장 이야기

발행인 | 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희태

발행처 | (재) 완주문화재단

발행일 | 2025. 12.

총괄 |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철우

총괄 운영 |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국장 이재정

기획 | 완주문화재단 문화가치확산팀

함께 만든 사람들 | 문화이장 6~8기

주소 |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 063-262-3955

홈페이지 | <https://www.wfac.or.kr/>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